

GEN3
THIRD GENERATION



새로운 세상을
위하는 도시

1959
Una notte non basta (1)
Le vuoi conquistare me resta all'amore
brido, le vuoi trasformare un paese
un regno di Dio, ~~3~~ ³ ~~la~~ ^{la}; tuoi calce
renditi degli amici che abbiamo
tuo sentimenti.

Unisti con loro nel Nome di Cri
chiedi a loro di fargli ogni

~~stato Dio~~
~~stato~~
Poi ~~per~~ ^{stazioni} ~~stazioni~~ con loro ^{essi} un patto: d'a
2. ~~giurati~~ ^{Primum} amore perpetuo e scotta

~~per d'ogni altra~~, affinché
regnatore del mondo sia sempre
esso a voi e in lui condottiero;
te distributo il vostro io nell' amor
venga ⁱⁿ ogni passo, si terga ogni le
terrida ad ogni gioia, la Madre ad
l'amore.

Quindi Poi, prendi le misure della notte

이름:

나의 단위:

GEN3
THIRD GENERATION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도시



이 책자를 통해,
끼아라 루빅이 3번째 세대인
우리 3젠과 일치를 위한 청소년들에게
남겨 준 ‘선언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
“사랑으로 색을 입히며” 끼아라와
첫 친구들이 트렌토에서 했던 체험을
되풀이 해보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도시 하나로는 너무나 작다.’라고
이 선언서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온 세상을 겨냥하여
일치된 세상을 건설하 도록 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시다.
우리 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너무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성언문에서

너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의 도시를
정복하고 싶다면,
(너 만일 한 나라를
하느님 나라로
변모시키고 싶다면),
먼저 계획을 세우라.



서언문에서

너와 생각이 같은 친구들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어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자고
그들에게 청하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서약”을 하라.

서로 끊임없이 사랑할 것을 약속하라.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신 하느님께서
항상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희의 지휘자가 되게 해 드리라.

그리고 도시의 크기를 가늠하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Al Collegetto



Chiesa Cappuccini



P.zza Cappuccini 2



Chiesa S. Marco



Palazzo Geremia



Rifugio

트렌토: 기아라의 도시



새로운
세상을
위하는
새로운
도시

MONTE BONDONE
VALLE DEI LAGHI
LAGO DI GARDA

CENTRO MARIAPOLI
"CHIARA LUBICH"
CADINE



S. Maria Maggi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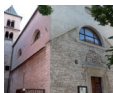
Casa natale



Le Androne



Piazza Fiera



Chiesetta S. Chiara



Ex Ospedale S. Chiara



Istituto A. Rosmi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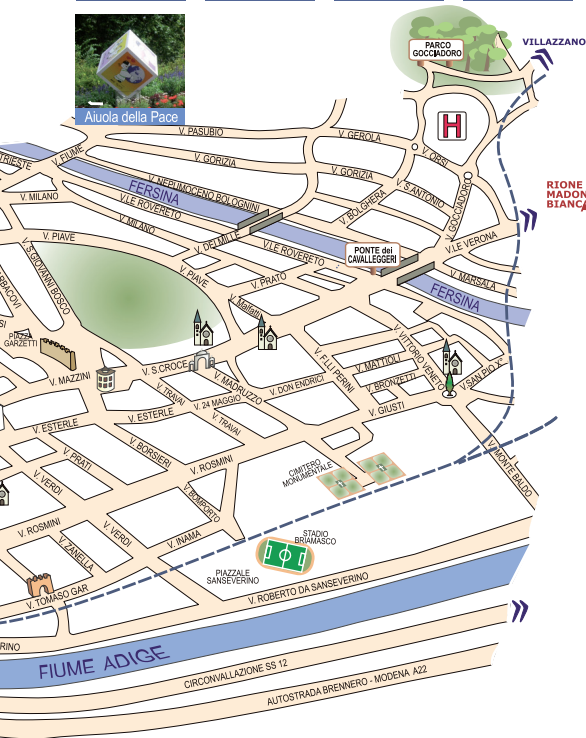
Aiuela della Pace



PARCO GOCCIADORO



Bosco Gocciadoro



RIIONE MADONNA BIANCA



Via Gocciadoro, 1



Rione Madonna Bianca



Corso 3 Novembre



Chiesa Santissimo



I tre Portoni



Duomo S. Vigilio



Ex Scuole el. Verdi



Il Torrione



Ist. Maria Bambina



Via Travai 74



그 도시의 영적 지도자를 찾아보라.
네 친구와 더불어 그분을 찾아가,
그분께 네 계획을 알려드려라.
(그 도시 젊은이들 마음을 얻는 것)
만일 그분이 동의하지 않거든
한 발짝도 내딛지 말라.
자칫 모든 것을 망치게 될 수도 있으니.

만일 그분이 네게 조언을 주고
행동 방침을 제시하거든,
그것을 명령처럼 받들고
너와 네 친구들의 좌우명으로 삼아라.

그분께 너의 충성을 말씀드려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무거운 과제를
도와드리겠노라 자신을 내어 드리라.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도시



우리 주위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도시상
위험한
새로운
도시



편지함에
편지

가장 불쌍한 사람들, 노숙자들, 버림받은 이들,
고아들,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관심을 쏟으라.

친구들과 함께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위로해 드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그들 가까이 있으며,
그들과 함께하고있음을 일깨워 주라.



배고픈 사람이 있거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헐벗은 사람이 있거든 입을 것을 가져다 주라.

너에게 입을 것이나 먹을 것이 없거든
믿음을 가지고 영원하신 아버지께 청하라.
그것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께 필요한 것이니
네가 돕고자 하는 각 사람 안에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네 청을 들어 주시리라.
그럼 그 물건들을 들고 거리를 지나
다락방에도 오르고 지하실로도 내려가라.
공공 장소로, 개인 집으로, 역으로, 철도 길로,
빈민가로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무엇보다 먼저 네 미소로 그를 감싸주어라.



“너희가 내 형제들이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새로운 세상을
위대한 도시

아이디어
무엇으로
상당한
새로운
세계
도시



아이디어 모으기





경연문에서

그 다음 영원한 사랑을 그에게 약속하라.
그리하여 네가 닿을 수 없는 곳에는
네 기도와 네 고통이
제대 위의 희생 제물에 합하여
그분께 도달하리니.



선언문에서

아무도 홀로 버려 두지 말고
약속을 인색하게 하지 말라.
너는 전능한 분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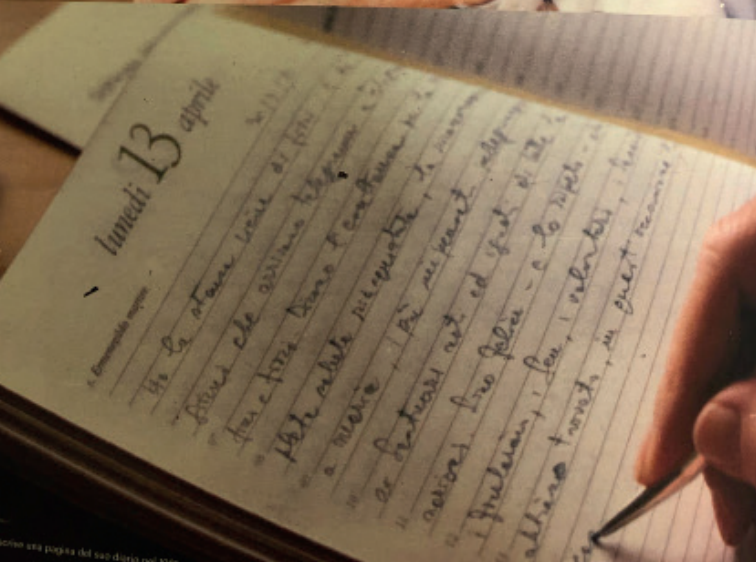


합송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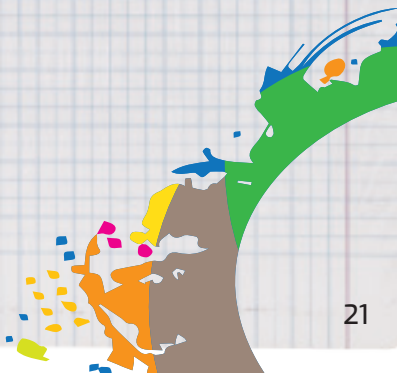
“우리가 ‘합송기도’라고 부르는 특별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이 기도로 늘 성령께 청하는데, 우리 공동 영성에 적합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마태 18,19) 라고 하셨어요.”

Chiara

끼아라 루피 - “성령과 포콜라레온도”



새로운
세계
새로운
도시





선언문에서

네가 형제들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동안,
하느님께서 너와 네 친구들에게
하늘나라의 선물(기쁨)을 가득 채워 주시리라.

그것을 너희들 사이에서 함께 나누라.



그리하여 빛이 흐려지거나 사랑이 식지 않도록.

네 행위가 확고하고
네 말에 지혜가 깃들여 있다면
많은 이가 너를 따르리라.

이 젊은이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네가 사랑으로 정복시키려는 그 도시에
이들이 누룩이 되게 하라.

그리고 계속하여 나아가라.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마태 11, 25)



새로운 세상을
위대한 도시

새로
세계
위한
새로
도시

미래
도시

함께라면 우리는 더 강하다





세상에
만남이
있다

다른 이들이 네 생활을 알게 되고
그들의 눈으로 하늘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목격하고는 네게 말해 줄 것을 청한다면
말하도록 하라.

네 말의 핵심은 네가 삶을 통해 배운 것들
(경험담)이어야 하리라.



새로
세계
위
새
도시

로
상
한
로
단
단



선언문에서

네 말에는 복음을 담도록 하라.
너와 네 친구들은
안전하고 메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샘,
복음에서 물을 길어 올리리라.

사랑하는 3젠들,

저는 여러분에게 3젠들의 삶에서 '역사적인 바톤 전달'이 될 당부를 하고자해요. 다른 아닌 복음에 관한 당부예요.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3젠들의 특징은 성덕(聖德), 곧 거룩함에 대한 민감함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덕에 도달하려면 복음을 살아야 해요.

내가 전달하고자하는 것은 단지 격려의 말만이아니라
한권의 책, 복음서예요. 여러분은 그 책을 즐겨 읽게 될 거예요...

한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잘 배우고 싶다면, 그것을 공부해야 해요.

그것을 더 제대로 알고싶다면, 그것을 가르쳐 줄 스승을 찾아야해요.
그리고 그 것을 아주 잘 알고 싶다면, 그것을 직접 가르칠 수 있을만큼
잘 알아야 해요.”

다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청소년,

바로 이 것이 내가 바라는 3젠의 모습이에요.

복음은 개인과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책이었으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예요.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린시절부터 복음으로 양분을 취해야 해요.

여러분이 참되게 복음을 잘 살아감으로써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는

사람은 “아,여기 이 땅을 지나는 또다른 작은 예수님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면서, 여러분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요.

Chiara

새로운
세상을
위하는
새로운
도시





선언문에서

사회에서 거부당한 이를 위로해 주고, 도와주며,
그에게 빛을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면,
너는 새 도시를 건설할 기초를 놓은 셈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한 자리에 모아
복음의 참 행복을 들려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분께서 그들을
(특히 가난한 이들을) 각별히 사랑하셨던 점을
결코 잊지 않게 하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부자들 가난한 이든, 잘 생겼건 못 생겼건,
능력이 있건 부족하건,
모든 이웃은 우리 곁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이시라고.



1

2

3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 5,7)

4

5

6

7

8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도시

새로운
도시
로
상
하
의
세
계

구체적으로 봉사하자





정연민에게서

너희 단위들이 그분께 도움을 드리게 하고,
누구든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어라.
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여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라라.



네가 행동을 할때 간절한 기도를 드려라.

완전한 일치로 바친 그 기도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큰 영광을 받도록 하여라.

투쟁이 힘겨울 때, 바로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음을 알도록 하라.
너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피로 대가를 치루셨음을 알도록 하라.

너를 나쁘게 보는 이가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네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너 또한 자비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코린토 1서 9,22)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도시





선언문에서

그리고 고통이 너를 짓누르면 이렇게 노래하라.

“아,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시구나!

이 분은 나의 정배, 나의 친구, 나의 형제”라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네 영혼에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일어나렴, 나의 벗이여,

나의 아름다운 벗이여, 이리 오렴.”

CAMERA DEI DEPUTATI

20-9-49.

58

Ho un solo Dio sulla terra: Gesù
Abbandonato: non ho altro Dio fuori
di Lui. In Lui è tutto il Paradiso della
Trinità e tutta la terra col'Umanità.

Per ciò il suo è mio e nell'altro.

Il suo è il Dolore universale e quindi
mio.

Andrò pel mondo cercando Dio in
ogni anima sola.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마르 15,34)

새로운
세상을
위하는
새로운
도시



안녕하세요
로상한로안
세계위세로
도시

더 나아가기



///
정언문에서

이는 한 도시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계획이다.
선이 악을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거듭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실행해야 할 계획이다.



매일 아침 영성체를 통해
너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에게
단 하나의 도시는 너무 작다.

하느님은 무수한 별을 만드셨고, 수 세기
역사의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 이시다.

**그 분과 함께 일치 안에서 먼 곳을 겨냥하여
목표를 정하라 : 우리 나라, 모든 이들의 나라,
세계를 목표로.**

그리고 매 순간의 너의 호흡, 휴식, 행위, 활동이
바로 이 목표를 위한 것이기를.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베푼 사랑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너무 조금 밖에 사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 17,21)



새로운
세상을
새로
위하는
도시



젠들, 내 생각에 이것이

여러분의 선언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고, 어른이 될 것이며,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은 바뀔 것이고, 국경도 변화할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많은 것이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서부터 하느님께 믿음을 두십시오.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젠들 한가지 시합을 합시다.

하느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시합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께서 여러분 청소년들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확신해요. 나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닮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요.

우리 사이에서, 다른 모든이들과 더불어 앞으로

누가 가장 많이 사랑할지 시합을 하기 로 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남기는 축원이에요.

이로써 저의 선언문을 마치고자 해요.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시다.

그리하여 생의 마지막에 그동안 너무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합시다!

Chiara

우리는
이상한
도시
새 세
위 새
도

우리, 축제를 엮시다!



// 우리의 도시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켰나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일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 변화된 점과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지 나눠봅시다.

그리고 함께 축제를 엮시다!

1959
Una città non basta ①
vuo
lo ~~mi~~ conquistare me città all' amore
brido, e voos trasformare un paese
un regno di Dio, ~~3 la~~; tuos calce
renditi degli amici; che abbiamo
tos sentiment.
'unisti con loro nel nome di Cri
chiedi a loro di morire agus
~~est~~ Bi
Pol ~~for~~ pet
2. fin
~~te~~ di
nuistale
esco a
te dist
vappa
verida
l' amore
Quin Po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끼아라가
이 선언문을 통해
세 번째 세대(3젠) 들에게
맡긴 것들을 재발견하고
더 깊이 생각해보았어요.
몇몇의 청소년들과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모토(표어)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사랑으로 도시를 색칠하자!”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 선언문 내용을
함께 실현하기 위한 참여 방법을
하나 개발했어요. 바로
“6X1”, 하나의 목표를 위한 여섯 단계
라고해요. 이 방법으로 우리의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의 새로운 세계,
하나의 일치된 세계를 실현하고자 해요.



6x1은 공동체와 함께 효과적으로 활동하기에 유용한 방법이에요.
6 x 1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 시야를 넓히고, 우리 도시의 다양한 현실들을 인식하기.
- 함께 그 안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발견하기.



아이디어들을 모아요.

- 부각된 문제들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평가하기
- 참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생각 해보기.



우리는 함께할 때 강해요.

- 우리가 확인한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설명하기.
- 이 문제에 대해 의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할 수 있을지 깨닫기.

6x1은 우리의 활동들을 일관되고 참여를 이끄는 방식으로 계획하도록 도와줍니다. 6x1은 차츰 우리 모든 그룹에서 우리의 도시나 동네에 대해 '공동의 시선'을 지니게 해 주어,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부족한 현실들을 알아내고, 우리가 특히 기여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봉사합시다.

- 우리의 프로젝트가 지닌 목표를 작성하기.
-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시간과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기.



더 나아지도록 노력할 줄 아는 것

- 평가의 시간을 우리의 그룹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자, 공동의 학습 시간으로 살아내기.
- 함께 산 모든 순간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기.



우리, 축제를 엮시다.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가 기여한 바를 발견하고, 그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기.
- 목표 달성 결과들에 대해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새로운
세계를
위하는
새로운
도시



이 심볼 마크는 공동 영성 도구를 깊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함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도시

centrogen3f@focolare.org
gen3m@focolare.org
centro.rpu@focolare.org

GEN3
THIRD GENERATION

